

[안전가옥 프로젝트 채용공고]

. 안전가옥 프로젝트?

‘좋은 이야기’의 힘을, 그리고 ‘좋은 이야기’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어 공유하고 만들어내는 구조가 필요함을 믿으며,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. 이야기를 만드는 원천이 되는 다양한 영감(원형)들이, 이야기의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그 이야기에 끌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네트워크가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.

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어렵고 고독한 작업입니다. 그리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즐기 위해서는 외부의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,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,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. 나의 취향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공간. 그 공간을 우리는 ‘안전가옥’이라 부릅니다.

오는 7 월 성동구 성수동에 첫 안전가옥이 오픈합니다. 기능적으로 훌륭한 창작자 작업공간 그리고 다양한 책들과 이벤트로 채워진 문화공간을 기반으로, '재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있는 커뮤니티'를 지향합니다. 성수동을 중심으로 가치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개발해왔던 HGI 와 함께, 안전가옥은 창작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이야기는 힘이 셉니다. 재미와 의미 모두를 가진 좋은 이야기, 그 힘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, 그 생각이 보다 가치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. 안전가옥은 창작자 커뮤니티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실제로 미국의 #PopJustice 연구는, 미드나 영화에 담긴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.

커뮤니티의 연대감을 견인할 수 있는 강한 팬덤, 소비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풍성하게 자극할 수 있는 세계관과 상상력 그리고 매니아들을 자극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가능한 장르가 안전가옥의 첫 번째 장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SF 와 판타지로 대변되는 ‘장르문학’입니다.

현재 열심히 작업 중인 안전가옥은 ‘라이브러리’와 ‘스튜디오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1) 안전가옥은 다양한 영감을 제공합니다. (주로 라이브러리)
 - : 창작욕구와 취향을 저격하는 최고의 인테리어와 공간을 구성했습니다.
 - : 작업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장서들도 구비했습니다.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갈 예정입니다.
 - : 약 25명 수용 가능한 세미나 공간이 있습니다.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들도 준비할 예정입니다.

- 2) 안전가옥에서는 이야기의 개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. (주로 스튜디오)
 - : 월 단위 유료 멤버십에 작업공간이 제공됩니다. (총 44석, 비 지정석, 개인 락커 제공)
 - : 정기회원 전용으로 루프탑 라운지 및 무료 음료 역시 제공됩니다.

- 3) 안전가옥과 네트워크를 만들고, 사업을 지원합니다.
 - : 창작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 - : 작품의 유통/마케팅 지원, 제휴 파트너로와 콘텐츠 유통 중개도 준비할 예정입니다.

[Experience Manager (공간 경험 매니저: 3~5년 경력)]

안전가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, 어떤 경험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.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. 그를 위해서는 누구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.

안전가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할지. 그 이야기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지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할 분을 기다립니다.

. 이걸 꼭 감안해 주세요

- 안전가옥 공간의 개/폐 시간에 맞추어 (보통의 직장인과는 다른) 탄력적인 근무가 필요합니다.
- 연봉과 휴가 등 인사정책과 처우는 개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- 공간의 오픈은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. 늦어도 6월 중에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- 근무 장소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입니다. <http://place.map.daum.net/10795589>

.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?

- 안전가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경험을 총괄해서 담당합니다. 아래의 세 업무를 5:3:2 비중으로요.
 - > 안전가옥의 설비 및 F&B 운영을 담당합니다. (음료 주문 관리, 파트타이머 관리 등)
 - > 장르문학 관련 클래스와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고, 직접 운영합니다.
 - > 안전가옥의 외부 커뮤니케이션, SNS 채널 운영 등 마케팅도 함께 진행합니다.

.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요?

- F&B 운영, 커뮤니케이션, 오프라인 행사 전반에 대한 경험 혹은 관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합니다.
-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
- 주도적으로, 그리고 완결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. 이런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.

- 온/오프라인 공간 혹은 커뮤니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면 좋습니다.
-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, 배우고 실험하고 망가지는 것을 과하게 즐기는 분이면 좋겠습니다.
- 와 년 뭐 이런 것까지 좋아하니 하는 이야기를 들은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.
- 서브컬처 장르를 포함하여 ‘글로 쓰진 이야기’를 많이 읽은 분이라면, 써보신 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.

관심있는 분은 이력서(국/영문 무관)와 A4 1 장 내외의 자유형식의 지원동기를 sttora2@naver.com으로 [안전가옥]을 말머리로 해서 6 월 11 일 자정까지 보내주세요.